

섬 문화로 본 제주 춤의 정체성

— <탐라순력도> 와 <입춘굿 탈놀이> 를 중심으로 —

김운마* · 김윤지**

<목 차>

1. 들어가며
 2. 제주도의 춤 하위문화
 3. <탐라순력도> 와 <입춘굿 탈놀이>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고는 제주도의 춤 하위문화¹⁾를 찾아내고, 그 요소를 중심으로 이형상(숙종28년)의 <탐라순력도>와 이후 이원조(헌종7)의 『탐라록(耽羅錄)』에 나타난 입춘굿 탈놀이를 문화사적으로 살펴 보았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그 자연을 끝없이 숭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연환경적 요소로 인해 무수한 신을 섬기고 있으며,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건포배은(巾浦排恩)』(1702년) · 일본의 제주수탈 제도화(1910년대) · 4·3사건(1948년)의 역사적 요소들로 제주 춤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중 <탐라순력도> 『

* 한양대학교 교수/ kimunmi@hanyang.ac.kr

** 한양대학교 강사/ bluewave@hanyang.ac.kr

1) ‘하위문화’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 사회에서 정통적 · 전통적인 위상을 지닌 문화 또는 지배적 문화에 대해, 그 사회의 일부 집단에서 한정된 일정한 위상을 지닌 문화, 특정사회 집단을 생겨나서 발전되는 독특한 문화로 정의한다(출처 : 위키백과 및 daum 국어사전 참고).

정의양로(庭儀養老)』·『정방탐승(正方探勝)』·『제주양로(濟州養老)』(1702년)의 무인(舞人)·무인(舞人)의 형상(形象) 및 의상·무구(舞具)의 구성을 통해 제주의 무수한 신당을 혁파하고, 중앙 유교문화의 유입과 재현을 위해 노력한 조선시대 성리학자 이형상의 흔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 도사 신광수『탐라록(耽羅錄)』(1764년)과 제주목사 이원조『탐라록(耽羅錄)』(1841년)에는 이형상의 정치적 흔적은 사라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 토속신앙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원조『탐라록(耽羅錄)』(1841년)의 ‘입춘굿 탈놀이’에 대한 기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주도민들의 토속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그러한 신앙심은 춤으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입춘굿탈놀이>는 험난한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기도의 집단춤이 주가 되고 있으며,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 했던 제주여성들은 노동을 놀이처럼, 놀이를 노동처럼 여기며 대동의 기락과 춤으로 삶의 시름을 신에게 비렴²⁾하였다.

결국 제주의 춤 문화 정체성은 두레형식의 노동을 놀이로 발전시킨 무아(無我)의 강인한 여성성과 정치적 부침(浮沈)을 거둬들이면서도 절대신을 향한 주술성으로 대표된다.



검색어: 제주춤, 정체성, 탐라순력도, 입춘굿탈놀이.

2) 비렴은 신에게 빈다는 제주방언이다.

1. 들어가며

21세기의 화두는 ‘문화’로 지방문화의 다양성 보존과 세계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즉 양자를 만나게 해 주는 ‘문화’는 향토에 뿌리를 둘 때 세계화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제주도 역시 타국의 섬 문화와 마찬가지로 제주토박이들이 형성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 낸 제주민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를 보존·계승하기 위해서 제주 향토에 뿌리를 둔 섬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문화적 특수성만을 강조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³⁾ 또한 문화예술의 현실적 제반 문제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제주 춤 문화는 물론이고 제주도 문화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제주 춤 문화의 고유한 맥을 찾아보는 연구는 의미있고, 국제자유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제주도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독특한 문화권을 지닌 제주도의 춤 뿌리를 찾아봄으로써 그들만의 춤 문화의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춤 하위문화는 자연환경적·민속적·역사적 요소 3가지로 찾아 볼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춤의 정신과 양상이 가장 잘 깃든 이형상(숙종28년)의 <탐라순력도>와 이후 이원조(헌종7)의 『탐라록(耽羅錄)』의 입춘굿 탈놀이를 문화사적으로 살펴보았다.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과 『정의양로(庭儀養老)』·『정방탐승(正方探勝)』·『제주양로(濟州養老)』의 면별로 도상학적 분석을 하고, <입춘굿 탈놀이>의 관련 문헌 및 비디오 자료를 탐색하여 제주 춤의 정체성을 고찰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이기욱,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1집(1989), 296쪽.

4) 제주 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굿의 춤 적 양상을 다룬 연구5편과 해녀춤의 연구1편, 무용사학 학적 관점의 연구1편으로, 제주 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2. 제주도의 춤 하위문화

1) 자연환경적 요소

제주도는 한라산(漢拏山, 1,950m)을 주봉(主峰)으로 하여 360여개의 오름으로 형성된 본도(本島)와 우도(牛島), 마라도(馬羅島) 그리고 추자군도(楸子郡島)등 인접 섬으로 이루어진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수진 분포상의 기후를 가졌다. 그리고 연평균 강우량은 2,000mm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의 다우지역에 속하고, 기본토양은 갈색삼림토와 화산회암쇄토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농경보다는 수렵과 채집이 보다 유리한 조건⁵⁾이며, 돌이 많고 물이 지표 속으로 쉽게 스며들어 복류하는 화산섬으로 인해 발농사의 경작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발농사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일을 제외하고는 여자들이 전담한다.

그러나 논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환경은 노작과 관련된 농경문화예술의 발달에 저해를 가져왔지만, 200여종이 서식하는 특이한 해양 및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유산⁶⁾을 현재까지도 전승·발전시키고 있다. 제주의 연안은 온대와 아열대적 성격을 띠며 쓰시마 난류와 황해저층냉수, 해안의 용천수 등이 유입되는 해양환경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제주인이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준다. 제주바다는 가난한 제주인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특히 남자가 귀하고, 잦은 외부 침략으로 인해 제주인구의 반이상이 군사인력으로 남자들이 활쏘기 또는 말타기 등의 훈련을 받아야 함으로 여자들이 모든 가사일과 농사일⁷⁾바다일을

5)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2001), 29쪽.

6) 대표적 제주문화로 ‘해녀춤’이 있으며, 이 춤은 해녀들이 ‘불턱’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는 해녀놀이를 제주의 송근우 선생님을 통해 근대시기에 창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녀춤은 제주의 대표적인민속춤으로 자리매김 한다. 고춘식, “제주 해녀춤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2쪽 재인용.

7) KBS영상사업단(2000), 역사스페셜 ‘탐라순력도’ [비디오녹화자료] 재인용.

해야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파도 속 깊은 바다로 가는 제주 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시대적·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강해져야만 했다.

제주도가 논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환경과 위험한 바다를 지녔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해안과 저지대로 부터 한라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난대식물, 온대식물, 한대식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제주 자연경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제주인들에게 자연의 영향력과 의미는 육지에 비해 다른 개념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며, 그 자연을 숭배한다. 때로는 변덕스럽고 거칠어 질 자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제주여성들은 자연을 위해 기도한다.

2) 민속적 요소

제주도는 자연·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연에 의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런 자연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따르고자 했다. 즉 믿음의 대상이 된 무속신앙을 숭앙(崇仰)하고, 인간·우주·만물의 성립과 운명을 신격(神格)으로 승화시켰다. 다음 사료는 이러한 제주인의 정신세계에 담긴 신당의 위력을 잘 대변해 준다.

<사료 1>

김 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⁸⁾

“귀신을 섬기는 남자무당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생길 것이라고 꾸짖어 위협하면서 재물을 훔과 같이 쉽게 취한다. 명일과 삭망, 초이레, 열이레, 스물이레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음사를 위한다. 음사가 거의 삼백여소에 이르며, 해가

8) 김정(金鄭, 1481~1521)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조광조와 함께 미신타파·향약 시행 등에 힘썼으나 기묘사화 때에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다. 『濟州風土錄』은 그가 제주 유배시절에 저술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가고 달이 갈수록 많아져서 요사스럽고 그릇된 것만 늘어난다. 사람이 병이 나도 약 먹는 것을 꺼리며 귀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해 죽음에 다다라도 깨우치지 못한다.”

이원진⁹⁾ 『탐라지(耽羅志)』

“제주인들은 삶과 죽음 등 그 모든 것을 신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교에 의해 제 주도민의 교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당과 불교를 혼합시킨 상태로 제주 도민을 회유하다가 유교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¹⁰⁾

<사료 2>

이형상의 『탐라록(耽羅錄)』¹¹⁾

“무격의 무리가 흑세무민하는 버릇은 보디 예로부터 있어 온 병폐라고 말하는 것 은 또한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 이르러서는 더욱 별납니다. 이미 위 아래의 명분도 없고 의리도 알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위(位)를 세우고 곳곳에 사당을 세워 숭상하는 버릇이 내륙지방에 비해 백배나 됩니다. … 무릇 배를 탈 때에는 그저 신의 재앙만 있음을 알지, 관가의 명령이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진상하는 배도 바람을 기다릴 때는 역시 반드시 신당에 하직을 합니다. “당하니(堂漠)은 마을의 신당을 말아 모시는 심방이다. 이들이 서로 계(契)를 만들어 굿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뺏어먹 고 소를 잡아 신당에 올리는 등 그 폐단이 큰데, 그 계가 수가 천이 넘는다.”¹²⁾

현재까지도 제주도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이 300여 곳이며, 신당이 있는 곳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릉·전답·천변·임굴·해변 등에 있다. 제주도 신당에는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곳

9) 이원진(李元鎭, 1595~?) 1653년(효종4) 제주목사로 『동국여지승람』 및 『濟州風土錄』을 참고하여 『耽羅錄』을 저술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10) 제주사료 탐독회, 『(역주)탐라지』(2002), 15쪽.

11)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제주목사 시절 쓴 『南宦博物』은 제주의 인문지리이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12) 이형상 지음, 오창명 역, 『남환박물』(2009), 112쪽.

은 없으나 대부분의 당은 울타리를 두르고 있고, 한 마을의 신앙형태는 생산, 삶과 죽음을 통괄하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신앙으로서 본향당 신앙이 중심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인은 본향단 신당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신당의 위력은 불교문화에서도 불교가 기층문화로 편입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당(堂)오백 절(寺)오백」이란 말에서 보듯이 고려시기 부터 조선시대의 불교는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에 따라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고, 왕실이나 신자들의 개인적인 발원에 의해 유지되면서 쇠퇴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산신(山神)이 사찰의 대상이 일부로 수용되거나, 또는 불교의 신앙 대상들이 민간 신앙에 습합되는 등의 토속화된 불교문화가 성행하게 된다.¹³⁾

제주도의 삼성신화를 통해서도 제주도의 문화 및 정신세계를 엿 볼 수가 있다. 제주도의 삼성신화는 탐라의 근원을 자연적·인문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시원을 밝히고자 했다.¹⁴⁾ 삼성혈은 제주도 사람의 전설적인 발상지이고, 삼신인(고을나, 양을나, 부을나)이 이 곳에서 동시에 태어나 수렵생활을 하다가 우마(牛馬)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벽랑국 3공주를 맞이하면서 부터 농경생활이 비롯되었으며 탐라왕국으로 발전하였다고 전한다. 특히 이 세계의 지혈은 주위가 수 백년 된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나뭇가지들이 혈을 향하여 경배하듯이 신비한 자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려도 일년내내 고이거나 쌓이는 일이 없는 성혈로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에도 매 춘·추제 및 건시대제를 지내고 있고, 초헌관¹⁵⁾은 도지사가 맡는다. 그리고 한 해 초 특정한 날에만 이사를 하는 신구간 풍속과 본향당의 굿이 열리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오늘날에도 제주도민들의 의식 기저에는 무속으

13)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2001), 118쪽.

14) 국립제주박물관, 상계서, 215쪽.

15) 종묘(宗廟)나 능에서의 제례(祭禮)에서 삼헌(三獻)을 할 때 첨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직임으로 대개 정1품의 관원이 이를 맡았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로 대표되는 토속신앙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크고 작은 곳을 집행하는 직능자인 심방은 시대상황에 따라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주문화의 상징의 하나로 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제주의 창조에서 지형의 형성, 제주인들의 출생·성장·결혼·죽음·마을의 형성 및 안녕을 이루는 모든 운명을 신당(神堂)에 좌정해 있는 무수한 신들로 인해 제주·제주인·제주문화가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적 요소

제주도의 자연환경적 및 민속적 요소들로 인해 춤 하위문화의 특성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巾浦排恩)』과 일본의 제주 수탈의 제도화 및 4·3사건의 역사적인 요소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강해진다.

제주도는 특산물의 보고(寶庫)이며,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소들로 인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수탈과 왜구의 50여 차례 넘는 노략질을 당해야만 했다. 이것은 섬의 배타적인 성향을 이해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며,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巾浦排恩)』과 일본의 한국토지조사를 통한 제주수탈의 제도화 및 그리고 4·3사건을 들 수 있다. 먼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巾浦排恩)』은 1702년 12월20일에 실시했다. 관리 300여명이 조정을 향해 배례하는 모습과 신당을 불태우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록한 이례적인 그림이다. 먼저 배례하는 제주목관아 관덕정 앞과 건입포에서 이뤄졌다. 관리와 선비들이 조정이 있는 북쪽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있고 제주읍성 밖에 있는 신당 10곳이 불에 탄 뒤 연기가 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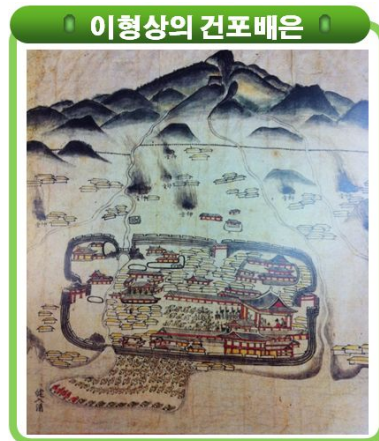
이 그림은 북제주 앞바다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제주목과 한라산 백록담

일대를 묘사하고 있다. 제주읍성의 건물배치와 민가를 축소 해 묘사하고 읍성 밖에는 당집을 그린 뒤 ‘신당’이라고 명기했다. 불타는 신당 사이로 드문드문 민가가 형성 되어있고, 화기에는 신당효과가 치러진 일자는 표기되지 않았다.¹⁷⁾

철저한 성리학자였던 이형상 목사는 신당을 태우고 사찰을 훼손했으며 무속인들이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를 취했다.『건포배은(巾浦排恩)』은 신당효과를 자신의 대표적

치적(治績)이라 여긴 이형상의 유교 중심적 사상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다. 동시에 이 장면은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시대, 18세기 초까지 유교이념이 제주도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고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국의 주권은 상실되었고 일제는 이보다 2년 앞서 일본인 경찰서장 이마무라(今村革丙)를 제주도사 직으로 겸직시킴으로서 제주도의 행정권과 경찰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울릉도와 제주도에 한한 것으로,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제주도는 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일본의 한국토지 조사는 일본인의 사적토지 수탈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수탈 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거쳐 일본 농민들에게 배부된다. 토지 소유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민의 경작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었고,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경작 저항의 분쟁이 일어난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 때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약 60% 이상이 토지 공유지화 및 국유지화가 되었다. 또한 이마무라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에게 문화재와



<사진 1>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巾浦排恩)』¹⁶⁾

16) 2011년 8월3일 국립제주박물관과 ‘탐라순력도’ 현장탐사를 통해 촬영함.

17) 윤민영, “탐라순력도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2010), 84~85쪽 재인용.

골동품을 약 30년 동안 약탈 당해야 했고, 분묘와 사찰을 파헤치는 등 제주의 고유 전통문화는 황폐화 되었다.¹⁸⁾ 그 후 5·10 선거에 대한 제주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는데 그 중 제주 4·3사건은 그런 저항 중 가장 규모가 컸고, 민간인 희생이 많았다. 이 사건의 계기는 제주도 남로당이 중앙당과 협의없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킨데 있지만, 1947년 3·1 시위 이후 육지에서 온 청년 단체 소속원들이 제주도민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린 것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제주도민의 다수가 미군정·이승만 정권에 저항적이어서 남로당 봉기는 제주도민의 항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1년 이상이 지속된다. 1948년 4월3일부터 시작된 봉기로 인해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두 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다. 주민 집단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 계속되면서 제주도민 약 30만 명 중 희생된 인원이 2만 5천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 같은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수탈과 침략으로 인해 더욱 강해져 가는 제주도의 배타적인 성향은 제주 춤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지독한 가난 속의 노동적인 움직임 이외의 삶의 여유를 부리는 歌·舞·樂의 향유는 이방적인 사치였다. 즉 춤의 수와 구성요소들이 유입·전승·발전 될 수 없는 춤 문화의 단절을 의미한다.

3. <탐라순력도> 와 <입춘굿 탈놀이>

1) <탐라순력도>

<탐라순력도>는 이형상이 1702~1703년 제주목사로 있을 때 제주도를 동-남-서-북으로 한달간에 걸쳐 순력하고 돌아온 후 그간의 상황들을 28폭

18)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자』 上(보고사, 2010), 125~129쪽.

의 그림으로 담아낸 총 41면을 된 도첩(圖帖)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순력은 보안 등의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고, 대신 지방관의 순력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군마공급지이자 유배지였으며, 왜구침략에 대비한 군사방어지 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으로 제주목사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강력한 지방통치를 시행했다¹⁹⁾ 제주목사는 봄·가을로 실시되는 순력을 통해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대정현과 정의현을 관리·감독하고 현감들을 통제했으며, 동시에 군가점검을 수행했다.

면	분류	제목표 1> <탐라순력도>의 면별내용 ²⁰⁾	내용 및 활동사항	
순 력 일 반 행 사	군 사 훈 련	제주조점(濟州操點)	1702년11월15일	제주읍성의 성정군 조련과 제반사항 점검
		조천조점(朝天操點)	1702년10월29일	조천진 성정군의 군사훈련과 인근 제2소목장의 둔마를 점검
		별방조점(別防操點)	1702년10월30일	별방성에서의 군사훈련 및 성정권과 군기, 우마를 점검
		서귀조점(西貴操點)	1702년11월 5일	서귀진의 조련, 군기 및 군마점검
		대정조점(大靜操點)	1702년11월10일	대정현의 성정군 조련 및 제반사항 점검
		명월조점(明月操點)	1702년11월13일	명월진 성정군의 조련 및 제반사항 점검
		애월조점(涯月操點)	1702년11월14일	명월진 성정군의 조련 및 군마점검
	성 조	화북성조(禾北城操)	1702년10월29일	애월진의 군사 및 군마 점검
		수산성조(首山城操)	1702년11월 2일	화북진에 소속된 성정군의 군사훈련 모습
	점 부	모슬점부(募瑟點簿)	1702년11월13일	순력 중 수산진 군사훈련 점검
차귀점부(遮歸點簿)		1702년11월13일	차귀진의 조련 점검	

19)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40쪽 재인용.

20) 윤미영, “<탐라순력도>연구”(2010); 장현주·이주영,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 관원복식 연구”(2006); 채형지, 앞의 책(2011)의 내용을 총 정리 하였음. 연구대상의 사진들은 2011년 8월3일 국립제주박물관의 ‘탐라순력도’ 현장탐사를 통한 촬영임.

		시사	별방시사(別防試射)	1702년11월 1일	별방진에서 실시된 활 쏘기 시험
			명월시사(明月試射)	1702년11월14일	명월진성에서 치러진 활쏘기 시험
		강사	정의강사(旌義講射)	1702년11월 4일	정의현에서 실시된 활쏘기 시험
			대정강사(大靜講射)	1702년11월12일	대정현에서 실시된 활쏘기 시험
		사회	제주사회(濟州射會)	1702년11월18일	제주읍성에서 실시된 활쏘기 시험
	하례의식	배전	대정배전(大靜拜箋)	1702년11월11일	대정현에서 나라의 경사를 듣고 임금에게 하례
	활쏘기경연	사후	천연사후(天淵射候)	1702년11월 6일	목사가 도내 문무양만들과 함께 천지연에서 도락(道樂)으로 활쏘기 장면
			현포사후(縣瀑射候)	1702년11월 6일	목사가 도내 문무양만들과 함께 천제연에서 도락(道樂)으로 활쏘기 장면
	사냥및행사	대렵	교래대렵(橋來大獵)	1702년10월11일	교래부근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장면
		방록	비양방록(飛揚放鹿)	1703년 4월28일	시슴을 생포 해 비양도에 방사하는 그림
		구마	산장구마(山場驅馬)	1702년10월15일	산장에서 말을 몰아 한 곳에 모으고 마필수를 확인
	시험및심사	시사	승보시사(陞補試士)	1702년 6월17일	소과 초시에 해당되는 시험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어 이 곳에서 시험을 치고 중앙정부에 등용자격을 주었음
		전최	제주전최(濟州殿最)	1702년11월17일	제주목사가 각 관리의 공적을 심사하는 장면
		점마	우도점마(牛島點馬)	1702년 7월13일	우도 목장 내에 있는 말을 점검
	연향	양노	제주양노(濟州養老)	1702년11월19일	제주목에서 치룬 80세 이상의 제주양만층을 대상으로 한 양로잔치 모습
			정의양노(旌義養老)	1702년11월 3일	정의현에서 치러진 양로잔치모습
			대정양노(大靜養老)	1702년11월11일	대정현에서 치러진 양로잔치 모습
제주지역	봉진	말	공마봉진(貢馬封進)	1702년 6월 7일	진상에 필요한 말을 징발 해 제주목사가 최종확인하는 장면

특별 행사	탐 승	감굴	감굴봉진(柑橋封進)	기록없음	각 종류의 감굴과 한약재로 사용 되는 골껍질을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봉진하는 모습
		과원	굴림풍악(橋林風樂)	기록없음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 실시된 풍악장면
			고원방고(羔園訪古)	1702년11월 6일	고둔과원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
		해돋이	성산관일(城山觀日)	1702년 7월13일	성상 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
		굴	산방배작(山房盃酌)	1702년11월10일	산방굴에서 배작하는 장면
			김녕관굴(金寧觀窟)	1702년10월30일	김녕의 용암굴 탐승
		폭포	정방탐승(正方探勝)	1702년11월 5일	정방폭포 위에서 수행원들과 말을 쉬도록 하는 동안 정방폭포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모습
		뱃놀이	병담범주(屏潭泛舟)	기록없음	취병담에서 실시 된 뱃놀이
	종 교	미신 타파	건포배은(巾浦排恩)	1702년12월20일	향품 문무 300여명이 일부는 관덕정앞에서 또 다른 일부는 건입포에서 북쪽을 향해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과 제주의 각 마을에 있었던 신당의 일부가 불타는 모습, 이형상 목사가 제주의 신당을 불태우고 사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실제 당시 도민들의 정서는 이와 반대였겠지만 이형상 목사는 신당혁명 자체를 커다란 업적으로 생각했음

<탐라순력도> 중 『정의양로(庭儀養老)』·『정방탐승(正方探勝)』·『제주양로(濟州養老)』는 무용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제시 된 그림으로 좀 더 상세한 도상학적 연구를 해 본다.

(1) 『정의양로(庭儀養老)』

전체	부분

11월 3일, 정의현성에 벌어진 경로잔치를 기록했다.²¹⁾ 이형상 목사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노인들은 목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녹색의 편복을 입고 양로잔치에 참석했다. 객사 앞에는 가야금과 거문고를 연주하는 7명의 기녀와 종타형 교방고²²⁾와 장고를 치는 각 1명의 기녀, 2명의 대금을 연주하는 악공과 피리를 부는 1명의 악공이 있다. 시중을 드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남성2명의 무인(舞人)이 서로 마주보며 양팔을 벌리고 춤을 춘다.

21) 조선 왕조는 매년 봄가을에 양로연을 열어 80세 이상의 남녀를 선발 해 참여시켰다. 관아의 앞뜰 안과 밖에 자리를 마련해 남녀를 구별 해 앉혔고, 나라의 재정이 좋지 않거나 천재지변으로 힘들 경우에는 미뤄졌다.

22) 교방고는 4개의 기둥에 가목목을 쳐서 만든 가자(架子)에 북면이 좌우가 되도록 매달아 북채를 가로로 움직이며 연주하는 형태의 두 종류가 있는데 종타형(縱柁型) 교방고는 고려시대 이래 사용되어 오던 것이고, 횡타형(橫柁型) 교방고는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하였다. 전자는 무고정제(舞鼓正制)에서 연주용 무구(舞具)로 1800년대 전반까지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북이 종타형 교방고로 본다. 김종수, “교방고(敎坊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음악연구』 제8호(2010), 77쪽.

(2) 『정방탐승(正方探勝)』

전체	부분

11월5일 목사 일행은 정의현에서 여러 행사를 마친 뒤 그 길에 있는 제주도의 명승지인 정방폭포를 구경했다. 이형성은 『남환박물』 「경승」에 정방폭포는 진실로 제1의 명승이라고 명기했다. 화면 왼쪽에는 폭포에서 떨어져 내리는 물줄기와 물줄기를 맞고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묘사되어 있다. 목사 일행은 폭포 근처 절벽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두 척의 배에는 기녀와 악공, 무인들이 나눠 타고 있다. 그리고 큰 배에는 두명의 남성 2명의 무인(舞人)들이 양팔을 벌리고 춤을 주고 있다.

기녀1명이 종타형 교방고를 연주하고 있고, 배 안 뒤로 각각 1명의 악공들이 나팔과 대금을 부르고 있다. 나팔은 멜로디가 없는 군용악기이며, 『정방탐승(正方探勝)』의 악기편성은 군악대의 구성과 동일함으로 이 지역에 군악대가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3) 『제주양로(濟州養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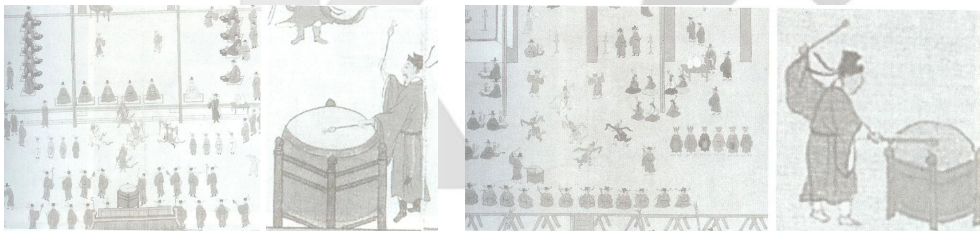
전체	부분

11월 19일, 제주목 관에서 실시한 경로 잔치이다. 제주목에 거주하는 양인 중 80세 이상의 노인을 모아 놓고 잔치를 열었다. 잔치는 망경루와 동헌 앞마당에 벌여졌다. 목사는 망경루 앞에 친 차일(遮日)아래서 연회를 구경하고 있고, 양로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이 목사의 정면에 앉아있다. 마당에는 악공4명이 대금과 피리를 불고 있으며, 기녀 3명이 거문고를 연주하고 기녀2명이 종타형 교방고를, 기녀1명이 장구를 연주하고 있다. 남성2인 무인(舞人)이 양팔을 벌리고 춤을 추고 있으며, 연회가 벌어지는 마당 중앙에는 포구문(捕球門)이 세워져 있고, 채선(彩船)에 상원 무관으로 보이는 남자 4명이 앉아있다. 무고춤, 포구락, 선유락 같은 궁중정재의 무용을 실시하지는 못한듯 하고, 그에 해당되는 무구(舞具)만이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악기의 수와 춤의 구성요소를 통해 <탐라순력도>의 연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의양로(庭儀養老)』, 『정방탐승(正方探勝)』, 『제주양로(濟州養老)』는 이 형상의 유교문화 전파 및 고착을 위한 내면의 풍경이다. 이는 『건포배은(巾浦排恩)』에 담긴 자신의 치적(治績)에 대한 과시와 백성 교화를 알리는 두 가지 정치적 의미를 표현 한 것이다. 세 가지 그림에서 춤을 구성하는 무인(舞

人), 그 무인(舞人)의 형상(形象) 및 의상, 무구(舞具)는 조선시대 육지의 중앙 문화가 제주도로 전파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무인(舞人)의 실체는 제주 관기에 관한 사적자료의 부재를 감안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제주 관아에 귀속된 관기, 관노의 신분이라기 보다는 중앙에서 파견된 무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향, 탐승 등의 연회적 성격을 띤 행사에서 무인(舞人)은 전립 도는 맥수장식이 된 전립, 붉은 꽃장식이 된 전립 등을 쓰고, 두록색 또는 녹색의 철릭을 입은 후 소색대를 두르고 춤을 추었다. 철릭은 주로 상급 관원의 융복으로 착용²³⁾하며, 신분의 지위에 따라 그림 속의 인물크기가 비례적으로 묘사 됨으로 탐라순력도의 춤추는 남성 2인무는 중앙에서 파견된 상원 무관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춤추는 형상은 서로 마주보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아래 <사진 2>와 같이 동시대 육지의 연회에서 볼 수 있는 춤의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섬이라는 이동과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야금, 거문고, 장고, 피리, 종타형 교방고 등의 삼현육각의 체재를 구성했고, 포구문, 채선(彩船)을 설치하였다. 육지의 중앙 연회가 재현 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는 이형상의 유교적 중앙문화의 절차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일면이다.



<사진 2> 조선전기 육지의 중앙 연회 속 무인(舞人) 및 무악(舞樂)²⁴⁾

23) 장현주·이주영, “조선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 관원복식”, 『한국문화사회』, 제57권 3호(2006), 176쪽.

그러나 이형상의 치적(治績)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듯 하다. 제주 도사로 부임 한 신광수의 『탐라록』²⁵⁾ 1764년(영조40)에서 제주 신당의 실상 및 성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 목사 이원조²⁶⁾의 『탐라록(耽羅錄)』 1841년(헌종7) 제주목 관아 관덕정(觀德亭) 앞에서 심방의 굿을 통해 그 해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입춘굿탈놀이의 기록이 발견된다. 즉 강력한 신당효과와 유교적 문화의 주입은 뿌리 깊은 제주의 토속신앙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2) 입춘굿 탈놀이

우리나라의 전통연희 가운데 민속놀이는 주로 세시풍속과 연관이 많다. 그러나 제주의 전통연희는 세시풍속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크게 굿놀이 계통과 그 외의 것으로 이분 할 수 있을 정도로 굿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²⁷⁾ 이러한 특이성 속에 굿놀이 가운데 유일하게 탈놀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제주 입춘굿 탈놀이이다.

입춘굿은 ‘춘경(春耕)’, ‘입춘춘경(立春春耕)’ 또는 ‘춘경친다’라고 한다. 입춘굿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원조(李源祚)가 제주방어사로 부임하여 헌종 7년(1841)에 쓴 탐라록(耽羅錄) ‘입춘일념운(立春日拈韻)’에 있다.

24) 김종수, “교방고(敎坊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음악연구』 제8호 (2010), 84~85쪽. 17~18세기 조선시대 연희의 그림이다.

25) 1764년(영조40)저자 신광수가 금오랑으로 제주에 가서 보고 느낀 그곳의 풍토, 산천, 조수, 항해, 상황 등을 한시로 노래한 작품이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6) 이원조(1782~1871)는 50세기 되던 해인 헌종 7년(1841년) 정월 통정대부에 승차되면서, 강릉부사에서 제주목사로 제수되었다. 그 해 3월 제주의 관문인 화북진에 도착하여 관덕정에서 군례를 받고 제주목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는 헌정9년(1843년) 8월까지 2년 반 동안 제주목사로 재직하였다.

27) 심규호, “입춘굿 탈놀이의 전승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17집(2000), 27쪽.

<사료 3>

“12월24일 입춘날 호장(戶長)²⁸⁾은 관복을 입고 나무로 만든 목우가 끄는 쟁기를 잡고 가면 양쪽 좌우에 어린기생이 부채를 흔들며 따른다. 이를 ‘췌몰이(退牛)’라 한다. 심방들은 신명나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는데, 먼저 객사(客舍)로 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관덕정 마당으로 들어와서 ‘밭을 가는 모양’을 흉내 내었다. 이 날은 관아로 부터 음식을 차려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이것은 탐라왕이 ‘적전(籍田)’ 하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

二十四日 立春 戶長具官服 執耒耜以木爲年 兩兒妓左右執扇 謂之退牛 熱群擊鼓前導 先自客舍次入管庭 作耕田樣 其日自本府設饌以饋 是耽羅王籍田遺俗云

이원조(李源祚)가 제주도에 부임하여 탐라록을 쓴 辛 卅 年 陰曆 十 二 月 二十四日是 憲宗 七 年(1841년)이고 이 날은 입춘날이며, <입춘굿>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탐라국 이후 1841년까지도 왕이 몸 소 ‘밭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던 농경의례가 전승되고 있었다. 이 사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여러 기록²⁹⁾에 따르면 제주도 입춘굿은 탐라국의 국행의례로부터 비롯되어 중세후기에 이르는 동안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으며 부침(浮沈)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고려조까지는 아주 성대한 행사로 치러졌을 것이고, 국가의례가 정비되는 조선 초 이후의 중세후기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유교이념에 영향을 받으며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승이 중단되다가 다시 이어지는 양상을 반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까지 제주도 입춘굿이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탐라국의 유풍(遺風)이라는 강력한

28) 호장(戶長) : 향리(鄉吏)의 수석,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祖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이 있다. 신라시대는 촌주(村主), 고려초에는 당대등(堂大等)이라 이르다가 고려 6대 성종2년(983)에 이 이름으로 고쳐 조선조까지 일컬었음.

29) 김석익, 『海上逸史』(1918); 도리이(鳥居龍藏), 『日本 民族—新話教人類學的 研究』, 1914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촬영 된 관덕정 마당의 입춘굿 놀이, 전라남도 제주도청, 『未開濟州島』; 김두봉, 『春耕風俗濟』(1936).

전통의 근거가 있고, 극심한 무속탄압에도 명맥을 유지하는 무속신앙의 성행이 주된 원인이다.³⁰⁾

즉 입춘굿은 민(民)을 대표하는 호장이 앞에 서면 제의를 주관하는 심방이 연희를 통해 흥을 돋우고 관에서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민(民)·관(官)·(巫)가 하나가 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춘굿의 사료 중 전승시기 입춘굿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1917년 김석익의 『海上逸史』 부분에 나오는 「춘경(春耕)」이다.

<사료 4>

춘경: 주사가 이를 주지하는데, 때면 입춘하루 전에 주사에 무격들을 집합시켜, 목우를 만들어 제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호장이 계화를 머리에 꽂고 몸에 단령을 걸치고 선다. 목우에 농계(農械)를 갖추고, 무격들에게 명하여 화사한 옷을 입고 호위도록 하며, 앞에서 인도하고 크게 징과 북을 울리게 하여 관덕정 앞까지 이르게 하였다. 무격들이 흠어져 어엿집으로 들어가 모아 놓은 벧집을 뿔아오게 하는데, 뿔아온 벧집이 영글었는지 여부로 새해 농사의 풍흉(豐凶)을 증험하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객사문 밖에 도달하여 호장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간다. 이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데 아주 큰 붉은 가면에 긴 수염으로 농부로 꾸미고 오곡 종자를 뿌린다. 다른 한 사람은 깃에 채식을 하여 초란이 처럼 쪼는 형상을 한다. 한 사람은 가면을 써서 엽부로 분장하여 초란이를 뒤쫓는 모습을 한다. 또 두 사람은 가면으로 여자배역을 꾸며 처첩이 서로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 가면을 써서 남자 배역으로 꾸미고 조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배역은 이를 내밀고 웃는 듯한 모습이며 형태가 꼭두각시와 심히 보인다. 무격 무리들은 한 줄로 만들어 도약하며 어지럽게 춤을 추면서 태평성대를 즐기며, 동헌 위로 올라가 똑같이 행한다. 이는 모두 탐라왕 시절왕이 친경, 적전하는 유풍이다 (목우는 횃대같은 나무로 제작하는데 전체 구조는 소와 형태와 같으며 다섯 색으로

30)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쪽.

채색하였으며, 수레바퀴를 회전시켜 물고갔다)

김석인의 기록에 따르면, 입춘굿은 크게 입춘 전날 행해지던 목우고사와 입춘 당일날 행해지던 무격들의 길놀이와 풍농점치기, 호장이 직접 행해는 춘경행사, 그리고 탈놀이와 무격들의 나장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탈놀이는 도리아(鳥居龍藏), 『日本 民族-新話教人類學的 研究』(1924)의 기록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탈의 형태나 연희의 모습을 보다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입춘굿 탈놀이의 특징은 탐라국 시대 왕의 친경의식이 변화, 발전한 관아 주관의 연희로 가면극 또는 무언극의 형태를 갖춘 곳이다. 내용면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새가 뿌린 씨를 쪼아먹는 과장-남녀가 농사 짓는 과장-여자를 서로 빼앗는 과장-악귀를 내쫓는 과장 등으로 구분되고, 등장하는 배역은 호장을 비롯하여, 농부와 새(꿩), 처첩2인, 남재(영감)1인, 엽부, 목사, 관원, 도황수가 있다. 그리고 입춘굿에서 굿의 절차는 청신(淸神)(낭쇄제작·낭쇄제사)→오신(娛神)(낭쇄몰이·입춘점·춘경탈놀이)→송신(送神)(여민동락·굿놀이)의 제의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입춘 전날 주사에서 이루어지는 낭쇄제작은 그 신에게 굿의 시작을 알린다. 입춘 당일 날 낭쇄몰이를 하면서 입춘점을 집집마다 봐주고, 춘경탈놀이가 시작된다. 춘경탈놀이는 모의 농경을 통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관민이 함께 하는 대동성을 보여준다. 이 놀이가 끝나면 관아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술을 서로 나눠먹는 여민동락(興民同樂)을 하면서 다함께神明풀이를 하면서 끝난다. 이러한 사적자료를 통한 ‘입춘굿 탈놀이’의 내용과 특징을 1914년 선교사에 의해 사진을 남겨진 ‘입춘굿 탈놀이’와 제 39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 한 ‘입춘굿 탈놀이’의 비디오 영상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1) 1914년 ‘입춘굿 탈놀이’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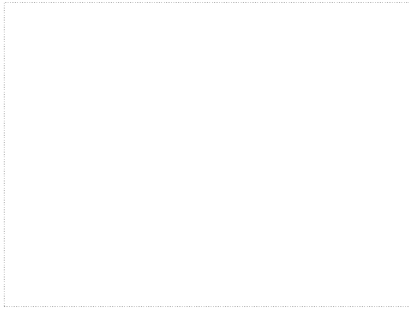
<사진 3>은 1910년대 관덕정 마당에서 제주도 내 무당 중 춤을 잘 출 추고, 사설을 정확하게 읊을 수 있는 무당들의 수장을 뽑고, 객사(客舍)들에게 입춘굿 탈놀이의 시작을 고하는 장면³²⁾이다. 맹두³³⁾을 든 심방은 빙빙 도는 동작이 많고 격력한 도랑춤을 추고 있다. 북과 대양³⁴⁾을 가지고 악사들이 신명을 돌구고 있으며, 객사들의 표정도 진자하다. 신을 부르기 위한 청신(淸神)의 장면이다. <사진 4>는 입춘굿 탈놀이의 어느 장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농부와 새, 엽부가 등장한 것으로 보다 농사 짓는 춘경의 탈놀이로 본다면 오신(娛神)의 해당된다. <사진 5> 역시 오신(娛神)에 해당이 되는 장면으로, 기생들이 한삼을 끼고 다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이원조(李源祚)의 『탐라록(耽羅錄)』(1841)에 나타난 퇴우(退牛)하는 과정에서 ‘아기(兒妓)’가 부채를 들고 춤추며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재현 한 것이다. 따라서 춤추는 이는 여무(女巫)가 아닌 어린기생이며, 무구(舞具)로 한삼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6>은 입춘굿 탈놀이가 끝난 뒤 모든 출연자들의 단체사진이다. 남편과 처와 첩, 엽부(사냥꾼)가 가면을 착용한 채 서 있다. 그리고 남자무당들은 도포에 갓을 쓰고 있고, <사진 6>에 등장한 한삼을 낀 기생들이 사사이사에 보이며, 제주 밭을 일굴 때 사용되는 쟁기, 괭이, 매 등의 소도구가 보인다. 특히 처가 어깨에 매고 있는 구덕 역시 입춘굿 탈놀이의 중요한 소도구임을 알 수 있다. <사진 6>의 단체사진을 통해 입춘굿 탈놀이의 주요출연자 배역 및 의상, 소도구의 형상을 알 수 있다.

31) 이 자료는 1914년 제주도로 파견된 외국선교사에 의해 촬영된 사진으로, 제주도청, 『제주100년』(1996), 10~15쪽과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2001), 220쪽에서 인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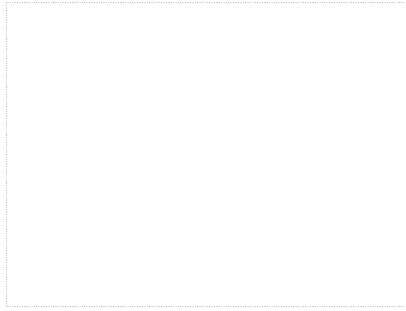
32)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9쪽 재인용.

33) 맹두는 육지의 신칼과 같은 무구(舞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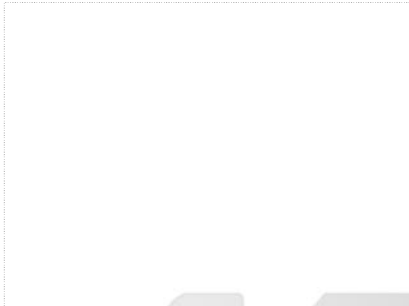
34) 제주도 무속악기로 사용되는 대양은 육지의 징과 같은 무악기(巫樂器)이며, 설췌, 북 등으로 포함하여 ‘연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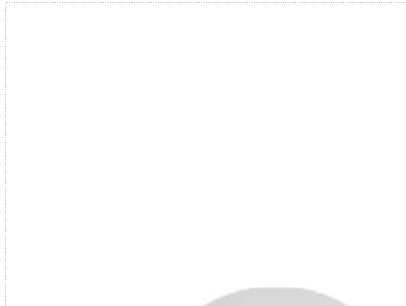
<사진 3> 춤추는 심방



<사진 4> 가면무를 추는 무당



<사진 5> 기생들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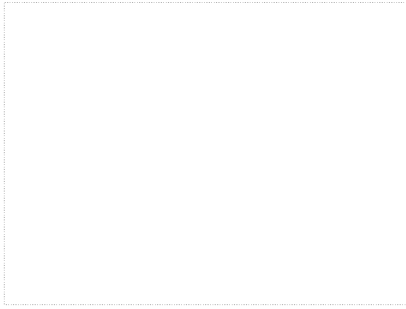


<사진 6> 공연후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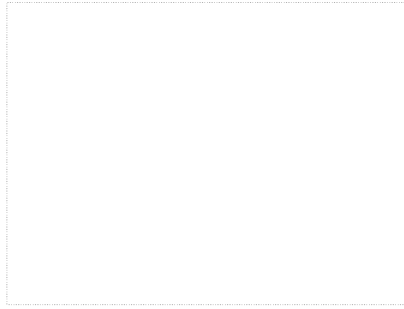
(2) 1998년 ‘입춘굿 탈놀이’³⁵⁾

이 공연은 총 다섯째 마당으로 구성 된 ‘입춘굿 탈놀이’로 <사진 7>에서 <사진 10>까지는 둘째마당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마당은 걸궁을 하면서 입장하는 장면으로 청신에 해당되는 목우제(木牛祭)와 퇴우(退牛)를 연속으로 연출하고 있다. 입장 후 본격적인 입춘굿 탈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도황수의 사설과 악가사들의 연물이 연주된다. <사진 7>의 도황수가 군문열임과 신

35) 1998년 ‘입춘굿탈놀이’는 제주 삼도1동의 주민들이 참가하여 밀양 공설 운동장에서 관덕정과 객사들의 제주목관아의 시설들을 무대장치로 꾸미고 총 출연인원 230명이 되는 큰 규모의 공연이었다. MBC 제39회 전국민속경연대회[비디오녹화자료] 인용.



<사진 7> '풍농비넵'을 하는 도황수



<사진 8> 도황수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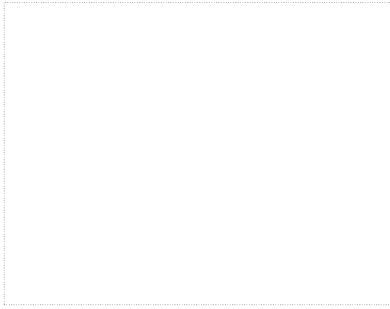


<사진 9> • <사진 10> 마을사람들의 농사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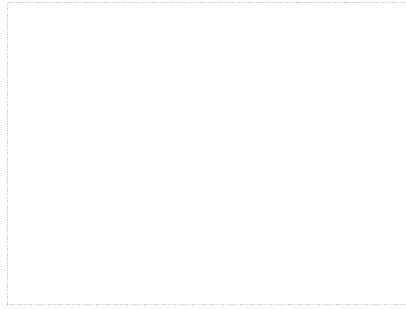
청례를 한 뒤 도랑춤과 신청례춤³⁶⁾을 춘다. 그리고 호장(戶長)과 함께 집집마다 돌며 보릿단을 거두어 와서 난가리점³⁷⁾을 친 후, 사설(私設)로 만들어진 관덕정 안으로 들어가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좌석한다. 이후 <사진 9>와 <사진 19>의 마을 사람들의 밭농사 장면이 묘사되고 여성중심의 대동적 구성과 움직임이 연출된다. 그러면서 농부와 첩이 만나 사랑놀음을 하는 셋째 마당이 시작된다.

36) 제주도굿 초감제에서 하늘에서 내려 온 신들을 심방이 감상관의 자격으로 오리 밝까지 마중나가 모셔오는 춤(출처: 네이버 민속신앙정보).

37)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보리난가리점(출처: 네이버 민속신앙정보).



<사진 11> 오줌주는 첩



<사진 12> 농부와 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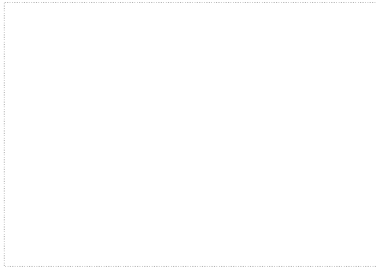
<사진 13> · <사진 14> 구덕과 처(각시)

<사진 11>과 <사진 12>는 첩이 농부를 유혹하기 위해 오줌을 누는 행위 등의 엉덩이 흔드는 춤을 춘다. 농부는 첩으로 다가가 애정행각을 펼치고 있다. 이후 농부의 처가 어깨에 구덕³⁸⁾을 매고 등장한다. 처는 첩과 씨앗싸움을 벌이며 농부가 조정해 서로화해를 시킨다. <사진 13>은 어깨에 구덕을 맨 채 한 손씩 좌우세를 하거나, 구덕 안에 있던 아기를 안고 움직이는 각시의 춤을 볼 수 있다.

38) 구덕은 아기를 담는 바구니로, 제주여성들은 이 구덕을 어깨에 매고 일터로 가기도 하고, 일터에서는 구덕을 음지에 놓고 일을 계속하기도 한다.



<사진 15> · <사진 16> · <사진 17> 기생들의 춤



<사진 18> ‘여민동락(與民同樂)’

넛재마당은 농부가 목사와 대면해 술과 담배를 요구하면 목사가 이에 응하고 주연을 베풀어 기생들의 춤과 노래에 걸궁패가 합세하여 잔치판을 여는 것이다. 부채를 들고 있는 기생들이 무대 전체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사진 18>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노는

여민동락으로 다함께 어울린다. 그 후 서우젯 소리에 맞춰 전 출연진이 뒷풀이를 벌인 뒤 퇴장한다.

1914년 ‘입춘굿 탈놀이’와 1998년 ‘입춘굿 탈놀이’를 통해 제주춤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적 자료 및 1914년 ‘입춘굿 탈놀이’에서는 심방이 추는 맹두(신갈)을 들고 추는 ‘도랑춤’과 ‘무답(舞蹈)’을, 어린기녀들이 추는 ‘한삼춤’, ‘부채춤’, 그리고 탈놀이의 각 배역에 따른 움직임과 소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1998년에 복원한 ‘입춘굿 탈놀이’에서도 도랑춤과 신청계춤, 기녀들이 추는 ‘부채춤’, 각 배역에 따른 각시춤, 영감춤, 사랑춤과 구덕과 패랭이, 농기기를 활용하여 춤을 춘다.

무용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입춘굿 탈놀이에서의 춤은 옛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김석익의 기록에서 마지막 송신의 여민동락 및 굿놀이에서 태평을 기하는 대동의 움직임

을 ‘무격배취작일도악나무이호태평(巫覡輩聚作一陶躍亂舞以號太平)’로 표기하고 있고, ‘습탁지상(拾啄之狀)’을 연희의 과정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학자 도리이의 춘경을 무답<舞踏>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주 무용사의 있어 ‘舞’의 글자를 언급했다.

또한 입춘굿 탈놀이에서 판굿으로서의 ‘걸궁’을 통해 제주 풍물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제주는 굿에서 이루어지는 대양(징), 북, 설쇠, 장고, 요령등의 무악기를 연물³⁹⁾이라고 한다. 연물 연주의 행위 및 단체를 제주에서는 ‘걸궁패’⁴⁰⁾라고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 <사료 5>를 통해 ‘걸궁(패)’의 유래를 추정해본다.

<사료 5>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제주목 풍속조를 보면

“제주 풍속이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신독(神籥)을 받들고 나희(儼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며 동리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아 굿을 한다.”⁴¹⁾

이 기록에 대해 현용준은 화반(花盤)이 ‘굿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굿돌이가 제주도의 전통적인 풍물굿인 걸궁과 입춘굿의 가면모의농경(假面模擬農耕)과 비슷하다고 한다. 제주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풍물굿⁴²⁾ 또는 풍물패가 육지 농악의 기능 및 형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논 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육지 농악은 노작, 축원, 군사, 걸립 등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졌던

39) 제주도 무속음악에 사용되는 대양, 설 의 의미이다.

40) 걸궁(패)은 육지 농악의 걸립의 의미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41)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풀빛, 2009), 109~110쪽.

42)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2), 237~238쪽.

기충문화⁴³⁾라면 제주의 농악은 ‘입춘굿 탈놀이’와 같은 판굿으로서의 걸궁 중심의 연회일 것이다. 이 ‘걸궁’은 마을의 신년제인 여성 중심의 무속적인 당굿과 유교식 포제의 기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육지 농악에서 논농사의 형태를 묘사하는 진법구조 및 무구(舞具)를 들고 추는 소고춤, 벽구춤, 장구춤, 열두발놀이 및 무동(舞童)이 제주의 ‘걸궁’에는 없으며, 춤 하위 문화의 요소들로 인해 육지 농악의 유입 및 전승이 힘들었을 것이다.

입춘굿 탈놀이는 관아에 의해 도향수를 선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굿 속에 탈놀이가 존재하는 굿들이 ‘걸궁’의 가락에 맞춰 굿의 절차를 따르는 연회이다. 그 속에서 신에게 기도하는 무인(巫人)과 발농사에 쓰이는 쟁기, 쟁이, 메의 소도구를 들고 노동하는 제주여성의 춤이 있다. 더불어 제주 민속 문화를 대표하는 여자들의 트레머리, 구덕 및 패랭이를 활용함으로써 ‘입춘굿 탈놀이’는 제주 기충문화의 정신과 형상의 총집합체이다.

4. 나가며

본고는 지리적, 문화사적 관점에서 <탐라순력도>와 <입춘굿탈놀이>을 중심으로 제주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제주의 무속신앙을 배척하고 유교문화를 고착시키고자 제주의 무수한 신당을 혁파했다. 더불어 중앙문화의 유입과 재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중앙연회 구성요소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제주 관아의 연회를 그린 『정의양로(庭儀養老)』·『정방탐승(正方探勝)』·『제주양로(濟州養老)』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무인(舞人)·무인(舞人)의 형상(形象) 및 의상·무구(舞具)들이 육지의 중앙 연회에 비해 매우 단조롭고, 그 수도

43) 김운미·김윤지, “청주농악의 춤사위에 대한 연구”, 『우리춤연구』 제12집(2010), 67쪽.

적은 편이지만 최소한 중앙 연회가 재현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였던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중앙 문화의 유입과 재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다.

2) 제주 도사 신광수 『탐라록(耽羅錄)』⁴⁴⁾에는 신당의 실상과 성행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기록이, 그 후 조선후기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록(耽羅錄)』⁴⁵⁾에는 이 때 이미 제주목사 이형상의 의도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토속신앙만이 그들의 문화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3) 제주도 입춘굿 탈놀이가 현재까지도 민(民)·관(官)·무(巫)의 합동으로 치룬다는 사실만으로 제주의 뿌리 깊은 토속신앙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결국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제주도민들의 토속신앙을 대신 할 수 없고 그러한 신앙심은 춤으로 극대화된다는 사실이다.

4)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자연과 더불어 존재한다. 자연을 관장하는 신은 초월적이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그들의 대동단결이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험난한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주술과 기도의 집단춤이 추어졌다.

4) 제주도에는 여성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자연에 더 많이 노출되어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 했던 제주여성들은 대동적인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했고 이러한 연유로 노동을 놀이처럼, 놀이를 노동처럼 여기며 대동의 가락과 춤으로 삶의 시름을 신에게 비렘⁴⁶⁾하였다.

이와같이 ‘탐라순력도’와 ‘입춘굿 탈놀이’ 중심으로 살펴 본 제주의 춤 문화 정체성은 두레형식의 노동을 놀이로 발전시킨 무아(無我)의 강인한 여성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영향의 부침(浮沈)을 거둬들이면서도 절대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 즉 주술성으로 대표된다.

44) 1764년(영조4).

45) 1841년(헌종7).

46) 비렘은 신에게 빈다는 제주방언이다.

<참고문헌>

- 고준식, 「제주 해녀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1.
- 김병태, 『제주예술의 사회자 上』, 보고서, 2010.
- 김윤미·김윤지, “청주농악의 춤사위에 대한 연구”, 『우리춤연구』 제12집, 2010.
- 김종수, “교방고와 좌고에 대한 소고”, 『한국음악연구』 제48권, 2010.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2001.
- 심규호, “입춘굿 탈놀이의 전승과 과제”, 『제주도 연구』 제17집, 2000.
- 윤민용, “탐라순력도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2010.
- 이기옥,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1집, 1989.
- 이원조, 『탐라록』, 1841.
- 장현주·이주영, “조선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 관원복식”, 『한국복식학회지』 제57권 제3호 통권112호, 2007.
-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풀빛, 2009.
- 제주도청, 『제주100년』, 1996.
- 제주사료탐독회, 『(역주)탐라지』, 2002.
- 채형지,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현용준, “화반고”,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영상자료

- KBS 영상사업단, 역사스페셜 ‘탐라순력도’, 2000.
- MBC 제39회 전국민속경연대회.

· 사진자료

송성대, 『문화의 인류와 그 이해』, 2001.

제주도청, 『제주100년』, 1996.

2011년 8월3~5일 삼성혈·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민속박물관 답사를 통한 촬영분.

K C I

The identity of the dance in Jeju observed by means of insular culture

—Focused on <Tamra Soonryeokdo(耽羅巡歷圖)>¹⁾
and <Yipchungut Talnori>²⁾—

Kim, Un-mi* · Kim, Yoon-ji**

This thesis has looked out for the sub-culture of Jeju dance, and has observed Yipchungut Talnori with a cultural history viewpoint shown in <Tamra Soonryeokdo(耽羅巡歷圖)> of Hyeong-sang Lee(28th year since the reign of King Sook-jong) and [Tamrarok(耽羅錄)] of Won-jo Lee(7th year since the reign of King Heon-jong) after on by focusing on those elements. As a result, the identity of the dance of Jeju that has unique cultural area is as follows. Jeju Island has worshiped numerous gods due to its natur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in which they have to admire and pray the nature endlessly even within its beautiful nature, and by the historical factors of <Tamra Soonryeokdo(耽羅巡歷圖)>[Geonpo Bae-eun](1702) from Hyeong-sang Le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ploitation of Jeju by Japan(the 1910s) and 4.3 Incident(1948), it could maintain the originality of Jeju dance culture. The forms of dancers in <Tamra Soonryeokdo(耽羅巡歷圖)> [Jeongeui Yangro(旌義養老)], [Jeongbang Tamseung(正方探勝)], [Jeju Yangro(濟州養老)] (1702) and the

* Prof. Hanyang University

** Ph.D. student Hanyang University

1) <Tamra Soonryeokdo> is <耽羅巡歷圖> in Chinese character, and Hyeong-sang Lee, the Jeju moksa, drew it as a picture of the itineracy of Jeju Island, which is a picture album. In this thesis, [旌義養老], [正方探勝], [濟州養老] of <耽羅巡歷圖> are the objects of the study.

2) <Yipchungut Talnori> is the masquerade of the exorcism on the onset of spring in Jeju.

composition of garments and dancing helmets are the traces by Hyeong-sang Lee, the Neo-Confucianist of the Chosun era, who has made an effort to introduce and reproduce the central confucianism and do away with innumerable shrines in Jeju. In the [Tamrarok(耽羅錄)] (1764) of Jeju guru Gwang-soo Shin and [Tamrarok(耽羅錄)] of Jeju moksa(牧使) Won-jo Lee (1841), the political intention and trace of Hyeong-sang Lee disappeared, and it is on the record that only their indigenous religion has rooted deeply into their culture. Especially, the record of ‘masquerade of the exorcism on the onset of spring’ of [Tamrarok(耽羅錄)] by Won-jo Lee showed that it could never substitute the Jeju resident’s indigenous religion at any circumstances and that faith is culminated into dance.

<Yipchungut Talnori> in Jeju is the collection of mindset and phase in Jeju culture. Collective dance of devotions to accommodate to the harsh natural environment turns out to be its main. Especially, Jeju island has an extraordinarily great female culture, and the women who have lived a painful life regarded their labor as play and their play as labor, and appealed their anxieties of life with the melodies and dances of Korea to god.

The identity of the dance culture in Jeju is represented as the incantation towards the absolute god with a repetition of strong feminism and political fluctuation of self-effacement that has developed the labor of a cooperative farming team format into play.

Keyword : Jeju of the dance, identity , <Tamra Soonryeokdo>, Yipchungut Talnori